

(771)

조

실

주체109
(2020)

10

특간호





1945



2020

차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2	조선혁명박물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개관식 진행	64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44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다채로운 행사 진행	66
청년들이 루치든 화불	52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에 펼쳐진 새집들이경사	76
10월의 반하늘에 댈 천 경축의 추모	58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자랑찬 승리로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근민전람회 진행	80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항도》 진행	62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주체109(2020)년 10월 10일 0시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경사스러운 10월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사회안전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왜서인지 류레없이 간고했던 이해에 맞는 당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10월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모든분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로 설레이지만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각지의 수많은 당원동지들과 로동계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있다는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안아오고 지키기 위해 올해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에 예상치 않게 맞닥든 방역전선과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것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것을 맡아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모두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군대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전초선과 재해복구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뿐만 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돌발적인 위협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효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들이 맡은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전투적인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 마을, 새 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세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과 기쁨만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무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비루스에 의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모든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두손모아 마음속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모두는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로력적열매들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디다. 간고한 투쟁의 연속이였고 수없이 많은 격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 당의 75성상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걸음한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으로 뜻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인이 경탄할 이 화폭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아나섰던 온갖 재앙들이 제압되고 우리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빛나게 달성되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번째 생일을 성대히 맞이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은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끓어치는 이처럼 벽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더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싶었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몸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이 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였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지 않을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며 전체 인민이 견제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귀중한 우리 인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년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두려움도 컸습니다.

허나 우리 인민은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뿐아니라 활기넘친 모습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강의하게 이겨냈습니다.

서로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런 인민이 높은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무서운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국가와 자기들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의 방역부분이 일떠서게 되었고 남들 같으면 상상할수도 없는 방역안정형세를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고 자기 집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때문에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흑심한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 나라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두말할것없이 우리의 매 가정, 매 공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더놓으면 언제나 산악같이 일떠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지하여 모든 국난을 타개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75성장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쳐 지켜주었습니다.

가장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당이 이 피어린 려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는 근본비결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우리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되어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사적으로 응위하고 성심으로 받들어주며 당의 구상과 로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력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의 영광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인들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대고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 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했으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위대한 인민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든든하였고 어떤 폭경속에서도 이 땅에 기적의 년륜을 새겨올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함없는 충효심과 굴할줄 모르는 투지, 성실한 노력으로써 세상풍파를 다 뚫고 넘으며 위대한 10월명절을 승리의 단상에 떠올린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750년, 7, 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줄 하늘같은 힘을 온몸으로 뿌듯이 받아안게 됩니다.

동지들!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과 결심을 그 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있습니다.

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렇듯 강렬하고 진정어린 믿음과 고무격려는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수 없고 수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부이며 두려움과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무한대한 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랄수 없는 최상최대의 신임이 있기에 나는 멸사복무의 사명감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무수한 도전들을 주저없이 맞받아나갈수 있었고 전쟁까지 각오해야 하는 결사전에도 나설수 있었으며 사상초유의 대재앙에도 강력히 대처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켜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엄숙히 확인합니다.

존경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립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림없이 잘살게 하는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놓았습니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열병대오는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한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똑바로 알수 있게 할것입니다.

불과 5년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창건 70돛경축 열병식과 대비해보면 누구나 잘 알수 있겠지만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볼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혁명리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충실하고 강력한 국방과학기술대군과 군수로동계급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만큼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있거나 맞다들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충분히 통제관리할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 식,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발전속도와 질과 양이 변해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제일 확실하고 튼튼한 국가방위력으로 규정했으며 그를 실천할수 있는 군사력 보유에 모든것을 다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목표들을 점령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협한 시도들과 위협적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자위적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람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것뿐입니다.

만약 힘이 없다면 주먹을 부르쥘것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령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위력한 최신헌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올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속에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일떠설수록 온갖 반동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닥쳐들수 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모든것을 격파할 힘이 있고 자신심이 있습니다.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력량과 자립의 밑천은 분명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될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 모든것을 다 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당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레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옵니다.

위대한 그 리상을 실현함에 총력을 다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체감할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강해졌으며 시련속에서 더더욱 강해지고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두다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갑시다.

끝으로 다시한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주신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애국가가 울리는 속에 주체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안고
성스러운 국기가 서서히 게양되었다.





노래 《빛나는 조국》이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경축하여 21발의 폐포가 발사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격정에 넘치신 연설을 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진정어린 민음이 구절구절 마다에 뜨겁게 넘쳐흐르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이어 국기제양식이 진행되었다.

에 국가가 울리는 속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시대와 력사우에 높이 받들어올린 주체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안고 성스러운 국기가 서서히 제양되자 국기제양대를 중심으로 축포가 터져오르고 오색찬연한 불풍선들이 날아올라 황홀경을 펼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원수 리병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10월 10일 0시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열병식이 진행될 김일성광장은 자위의 기치높이 불패의 군력을 백배천배로 다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후손 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준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으로 끓어넘쳤다.

불야경을 이룬 광장으로 공화국의 힘, 공화국무력의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며 열병종대들이 보무당당히 입장 하였으며 광장과 잇닿은 대통령들에는 기계화종대들이 정렬해 있었다.

열병비행종대들도 김일성광장상공을 날을 시각을 기다리며 출격명령을 대기하고있었다.

종합군악대가 광장에 입장하여 군악례식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공화국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에 도착하시어 조선 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열병식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 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합성이 하늘땅을 진감 하고 축포가 10월의 밤하늘가에 터쳐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총참모장 박정천원수의 구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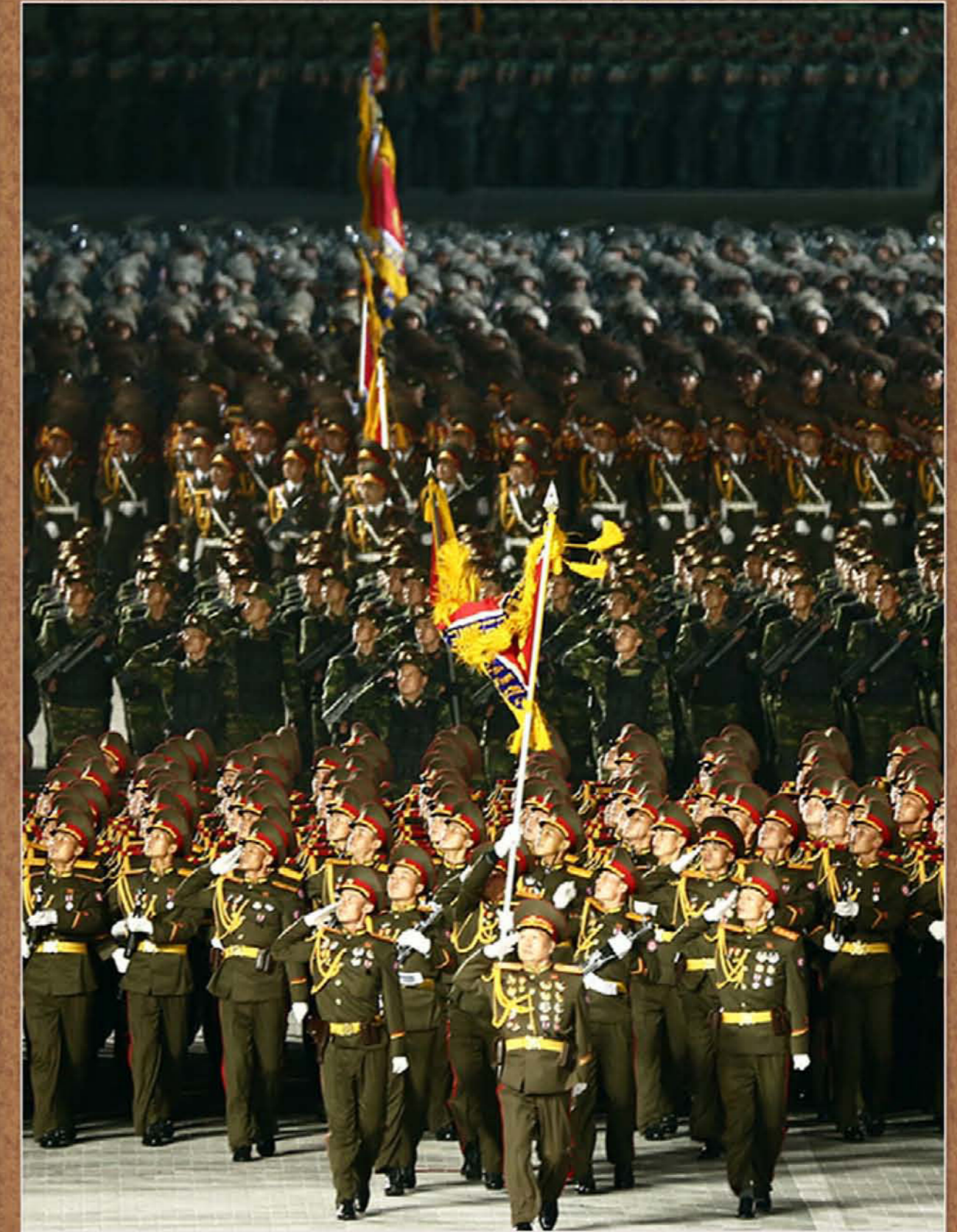


환희로운 10월의 밤하늘에 거세차게 나뭇기는 강국의 기발을 우리러 전체 참가자들은
 승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원수 리병철동지가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최정에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원수의 구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조선의 혁명무력이 항일전의 말발굽소리높이 백두광야를 주름잡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찬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명예기병종대가 호기차게 달려나갔으며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제일친위병, 제일결사대의 긍지와 영예를 지닌 열병대오가 기세충천하게
 광장을 지나갔다.













김일성광장상공에서 주체적항공무력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열병비행이 있었다.





장갑차종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었다.

제1, 제2, 제4, 제5군단종대들과 해군, 공군종대에 이어 전략군종대가 공화국 무력의 자랑인 화성포병의 긍지를 안고 힘찬 보폭을 내짚었다.

저격병, 정보병종대들과 여러 군단종대들의 힘찬 발구름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종대를 비롯하여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종대들과 전문병종대들, 사회안전무장기동부대종대가 혁명군가에 맞추어 나아갔다.

나라의 최고급군사지휘관양성의 중심기지로 명성높은 김정일군정대학종대와 력사가 있고 권위있는 세계적인 대학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종대, 인민군대 정치일군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정치대학종대, 수많은 국방과학기술인재들을 배출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종대에 이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각급 군사학교종대가 보무당당히 지나갔다.

혁명학원종대들과 로농적위군종대, 붉은청년근위대종대가 주석단앞을 행진해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전필승의 영웅한 기개를 떨치며 지속을 올리는 열병대오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수도의 밤하늘에서는 열병비행이 진행되었다.

호위비행중대의 뒤를 이어 당마크와 《75》라는 수자대형을 이룬 붉은 매들이 밤하늘에 축포란을 쏘아올리며 경축광장의 상공을 지나갔다.

부채살대형을 이룬 전투기들이 광장상공을 기세차게 썰며 눈부신 축포란으로 황홀한 비행운을 새겨 열병비행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대관현악의 장쾌한 선율이 광장을 진감하는 속에 장갑차중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중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었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중대가 평음을 울리며 전진해나갔다.

최강의 무력인 미더운 포병무력의 진군화폭이 편이어 펼쳐졌다.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고결한 충성과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태어난 첨단무기들이 무궁무진한 정의의 힘, 공화국의 군사적잠재력을 파시하며

용용히 나아갔다.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조선로동당의 자위적 핵억제력의 상징인 로케트중대들이 기세찬 동음을 높이 울리었다.

화성포들의 장쾌한 흐름이 도도히 굽이친데 이어 역사적인 2017년 11월 29일 조선의 존엄과 힘을 우주만리에 떠올린 자랑스런 대륙간 탄도로케트 붉은기계1중대 중대가 진군해갔다.

국가와 인민의 권위와 안전이 실려있는 거대한 핵전략무력이 지심을 무겁게 누르며 들어서자 온 광장이 걱정과 흥분의 열파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최악의 시련속에서 100% 자체의 힘과 기술, 주체식으로 설계제작한 최첨단전략무기들을 커다란 민족적자긍심을 안고 바라보며 관중들은 결사의 공격정신으로 험로역경의 고비를 넘고넘으시며 부국강병의 세기적숙원,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조선의 존엄과 힘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대륙간탄도로켓종대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담아내고 나아가는 주체병기들의 용건장중한 모습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조선의 앞길을 막아나서는 그 어떤 도전세력도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우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이 땅위에 존엄 높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일떠세워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을 이룩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폭풍노도쳐나아가는 위대한 인민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사진 김성남, 리광성, 김성철, 리명국, 임철,
박명일, 김철우, 박철
글 박병훈



수십만 평양시민들이 열병식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군중시위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가 10월 10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경축대회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강령을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려정을 즐기차게 이어온 조선로동당이 국가와 인민을 가장 올바른 길로 향도하여 반만년력사에 처음 보는 거창한 승리와 변혁을 창조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군중시위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군중시위에는 각 도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어머니당의 탄생을 뜻깊게 경축하는 크나큰 환희에 넘쳐 수많은 수도시민들이 광장바닥에 꽃바다를 펼치였다.

군중시위 시작이 선언되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시위대오가 장엄한 행진을 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시위대렬이 광장에 들어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풍선이 날아올랐으며 경축의 꽃바다가 세차게 설레이었다.

공화국기와 조선로동당기를 대형기폭으로 펼친 시위대렬, 각 도 환호대렬 등이 광장을 굽어쳐갔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군중시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사진 김성진, 김철우
글 최광호







75 청년들이 쬐켜든 촛불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촛불행진이 10월 10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당중앙지도 기관 성원들, 군부의 지휘성원들과 함께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촛불행진시작이 선언되자 불의 바다우에 경축의 글밭들이 련이어 새겨지고 광장상공에서는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상한 불꽃대형이 눈부신 채광을 뿌리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에 드리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열렬한 축하의 마음이 《어머니 당에 영광을!》 등의 촛불글밭로 활활 타올랐다.

광장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신 무개차들이 청년전위들의 용위를 받으며 들어서자 우렁찬 《만세!》의 합성이 리저올랐다.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의 노래선들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이 촛불의 바다에 승엄한 빛을 뿌리었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 만세!》의 우렁찬 구호를 웨치며 《절세의 영웅》의 글밭을 새긴 대렬들이 광장으로 들어섰으며 《위대한 당》, 《최강의 군력》, 《자주》 등의 글밭이 광장바닥에 펼쳐졌다.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일심단결》, 《사회

주의》, 《자력갱생》 등의 글밭을 펼치며 촛불대오들이 전진하였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등의 오색령롱한 불꽃글밭이 물결쳤다.

경축의 밤하늘에 노래 《당을 따라 청년들이 앞으로》를 합창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촛불행진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펼칠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따라 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쳐나아갈 계승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사진 김성진, 김철우, 주예광
글 최광호







10월의 밤하늘에 러썬 경축의 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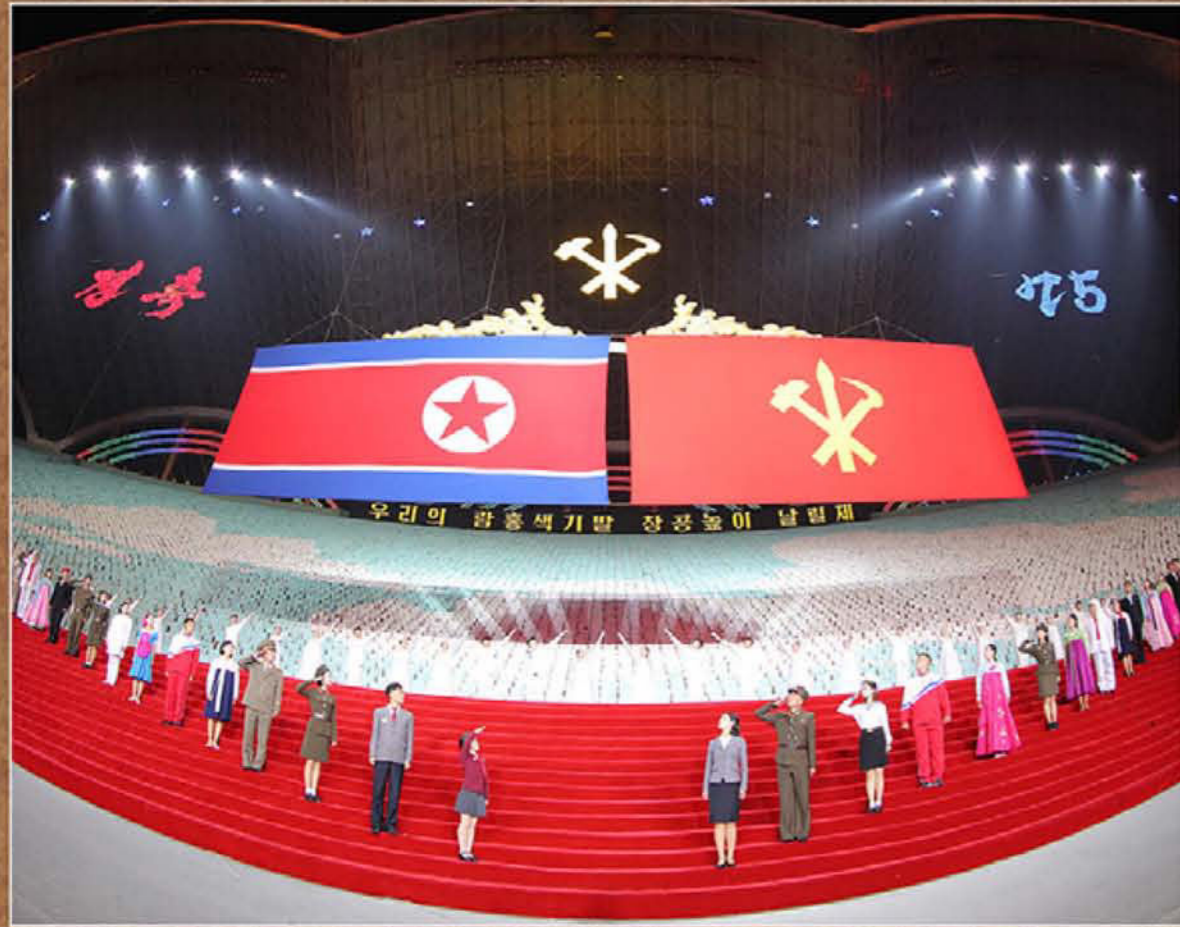




사진 박장복, 리광성, 리명국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주체109(2020)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가 10월 11일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 열병식참가자들,

참관성원들, 평양시민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을 보았다.

노래 《우리의 국기》가 울리는 속에 공화국기와 당기가 승엄히 게양되었으며 상공에는 《위대한 향도》의 제명이 새겨졌다.

출연자들은 서장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 제1장 《당은 우리의 향도자》, 제2장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제3장 《격동의 시대》, 제4장 《민족의 영광》, 종장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다》로 구성된 공연무대를 펼치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조선혁명박물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개관식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조선혁명박물관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이 새로 꾸려져 개관되었다.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떨쳐온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은 단결의 전통, 충실성의 전통을 백승의 사상정신적무기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중앙의 높은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극진한 동지적사랑과 은혜로운 품속에서 성장한 혁명전사들의 영생하는 삶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을 새롭게 꾸리실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매 호실들마다에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전사들을 생사를 같이할 동지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영상사진 문헌들과 영상미술작품들이 모여져있으며 많은 혁명사적자료들과 혁명사적물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혁명을 알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뜻을 배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조선로동당과 운명을 함께 한 혁명전사들의 값높은 생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진렬전시되어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조선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전통은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었다.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 꾸린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개관식이 10월 2일에 진행되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광호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기념주화 발행



기념주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금화)



기념주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은화)



삼지연관현악단공연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다채로운 행사 진행



만수대예술단, 왕재산예술단 합동공연과 국립교향악단음악회



중앙사진전람회

조선인민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쳐흘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로 흥성이었다.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승리와 영광의 75년》이 개막되고 각 도의 사진전람회장들에도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세계가 펼쳐졌다.
 당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국가미술전람회, 중앙산업미술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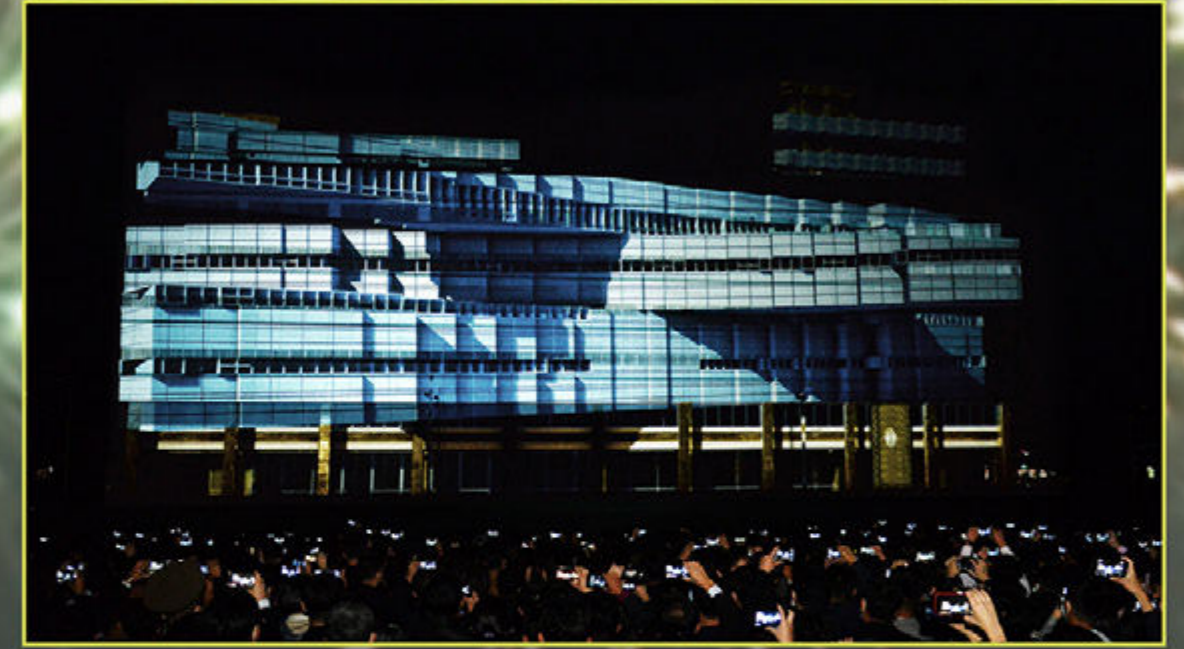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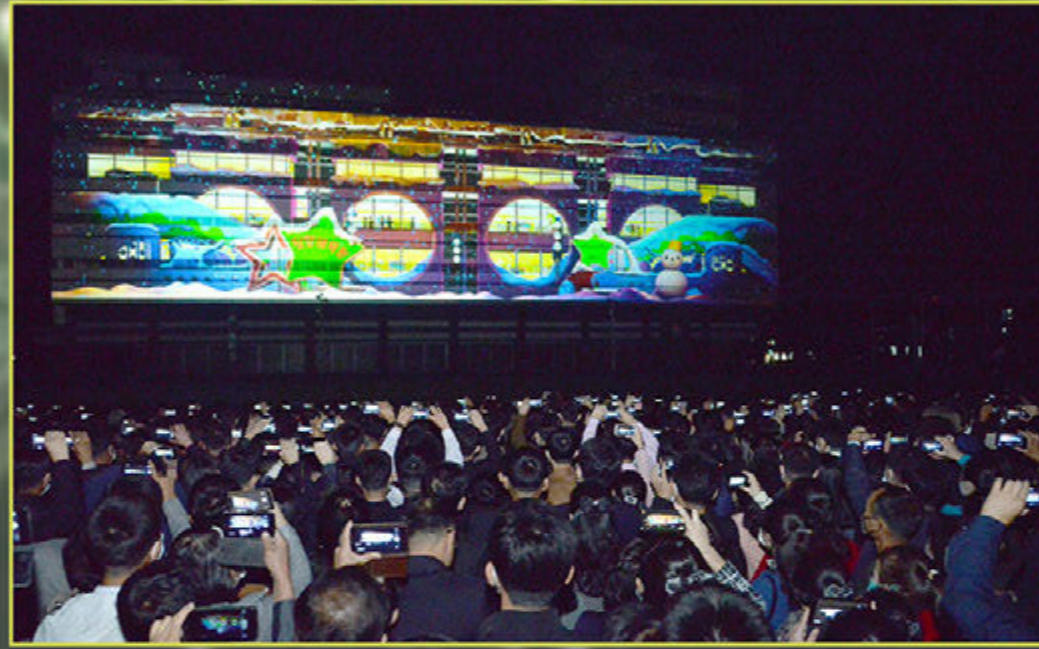
국가미술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 등이 개막되었다.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전인민적인 경사로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의 환희가 경축의 노래로 울려 퍼졌다.
 수도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자리잡은 삼지연극장에서 삼지연관현악단공연이 절찬속에 진행되었다.
 삼지연관현악단과 함께 주요예술단체 가수들이 출연한 공연에서는 조선인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긍지높이 불러온 어머니당에 드리는

송가들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명곡들이 울려 퍼졌다.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에술단과 왕재산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진행되고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음악회가 진행되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고 평안남도과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도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사진 손희연, 김영호, 류광혁, 방은심 글 강수정



국가도서전람회, 중앙산업미술전시회, 조선우표전람회가 있었다.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조명축전 《빛의 조화 - 2020》





**경축의 밤을 이채롭게
잠식한 뭇음무대**





사진 박창복, 송대혁, 리철진, 손희연, 리진혁

평양대동강백주축전도 있었다.

흥성이는 봉사기자들

수도와 지방의 봉사기자들에서는
특색있는 명절봉사가 진행되었다.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에 펼쳐진 새 집들이 경사

세계적인 재앙인 악성전염병의 국내류입을 차단하며 례년에 없는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드바쁜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속에 가을이 왔다.

올해의 가을은 특히 수재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계절인가싶다.

혹심했던 폭우와 강풍피해의 흔적조차 찾을수 없이 변모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지난 9월 17일 모든 수재민들이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에 입사하였다.

이어 10월 9일에는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자연재해지역들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농촌마을들에서 일제히 새집들이가 진행되었다.

모든 수재민들이 래풍과 큰물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두달도

못미처서 종전의 집들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이 훌륭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았다.

이는 올해 장마철기간에 전국적으로 수만여정보의 농경지와 함께 수많은 살림집들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한 즉시 조선로동당과 정부가 취한 강력한 대책의 귀결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리진범





태풍과 큰물피해로 하여 한지에 나왔었던 수재민들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새 집들에 입사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자랑스런 승리로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근민련합집회 진행



사진 조선중앙통신

